

# 호남의 미래 달린 총선 ... 잘 보고 잘 뽑자

## ■광주일보가 제안하는 ‘5대 투표 포인트’

앞으로 4년동안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끌 동력을 뽑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한국 정치사의 흐름을 바꿀 국회의원 선거인만큼 투표에 적극 참여해 진정으로 지역을 대변할, 한국 정치사의 인물이 될 후보를 뽑아야 한다.

특히 아권의 뒷발인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는 새로운 제3정당이 탄생하면서 그동안 특정 정당의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의 틀이 깨졌다. 그만큼 유권자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일보가 이번 선거를 위해 ‘5대 참여 포인트’를 제안한다.

1. **공약 꼼꼼히 살펴보자**  
이번에 잘 뽑아야 앞으로 4년이 편하다. 내가 사는 지역발전을 기억할 수 있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질 수 있다. 선거 공보만 잘 살펴봐도 어떤 후보가 지역발전

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 공약 중에서도 숫자가 포함된,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마련 방안이 들어간 공약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참 공약의 기본 요건인 목표·기한·재원 마련 등을 잘 요약한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히 찾아보자.

2. **선거공보 둘째 면 꼭 읽자**  
선거법상 후보자가 반드시 밝히야 할 신상 명세가 선거공보 둘째 면에 간단명료하게 게재돼 있다. 후보의 인격과 양심이 압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금은 잘 냈는지, 전과는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후보가 남자라면 병역은 마쳤는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면 이유는 뭔지도 상세히 챙겨보자. 전과가 있다면 파렴치 범인인지 국가사범인지도 잘 들여다보자.

3. **‘묻지마’ 투표 안 된다**  
무조건 당만 보지 말고 후보들이 지역사

①공약 꼼꼼히 살펴보자

②선거공보 둘째면 꼭 읽자

③‘묻지마’ 투표는 안 돼요

④지방신문을 참고하자

⑤막판 돈선거 고발하자

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과거 경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뽑아야 한다. 인물의 됨됨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자신이 내놓은 정책공약을 무난히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당 독점’에 대한 폐해가 지역정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만 보고 찍는 ‘묻지마’ 투표는 자제해야 한다.

4. 지방신문을 참고하자

공약과 자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후보 공보물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보도된 지방신문 기사와 후보자 후원회 광고 등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방신문일수록 지역사정에 정통해, 정확한 정보를 풍부하고 다채롭게 제공한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참고가 가능하다. 지방신문 광고 또한, 후보자가 내세우는 지역발전 비전과 가치관이 담겨 있다. 행정철학과 주민에 대한 의식이 녹아있어 후보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5. **막판 돈선거 고발하자**  
주변에서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눈에 띄면 선관위에 제보하는 공명선거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전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과열·혼탁 양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점전지역은 더욱 그렇다. 돈 선거를 하는 후보를 뽑았다가, 재선거라도 하게 되면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20대 국회 개원준비 본격화

### 임기 5월 30일 시작 국회의원 배지 99% 은배지

국회사무처가 제20대 국회 개원준비제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1일 국회 본관에서 ‘20대 국회 개원준비지원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4·13 총선 이후 주인을 찾게 될 제20대 국회의원 배지(개당 3만5000원)도 공개됐다.

국회의원 배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지만 실제 국회의원 배지는 사실상 ‘은(銀)배지’이다. 99% 은으로 제작하고 미량의 금을 도금한다고 한다.

10대 국회 때까지는 ‘금배지’라는 말에 걸맞게 순금으로 제작했으나 11대 국회부터는 지급처럼 은으로 배지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도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개원준비지원실은 13일 이후 국회의원 배지를 배부할 예정이다.

개원준비지원실은 국회의원 총선거 다음 날인 오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등록을 비롯해 출입증 및 도서관 열람증 발급, 재산 등록 및 보좌직원 임용 안내, 입법지원기관 안내 등 개원 관련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총선 결과 탄생한 20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다. /이종행기자golee@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4·13 총선을 이틀 앞둔 11일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배지가 공개됐다. /연합뉴스

## 3당 체제 구축 땀 새로운 정치 실험 기대

### ■총선 후 정국 시나리오

### 與 과반 땀 국정운영 탄력 여소야대 땀 조기 레임덕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1년8개월여 남기고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향후 정국의 향배를 결정하는 방향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일 각 당과 선거전문가들이 보는 현재 판세는 새누리당 145~165석 사이, 더민주 95~105석 사이, 국민의당 30~40석 사이, 정의당 4~8석, 무소속 8~15석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대 관심사는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 의석 유지 여부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달

성으로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유지할 경우 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도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될 수 있고 노동 개혁과 각종 경제 활성화 입법 등 4대 개혁 추진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된다.

반면 집권 여당이 과반에 실패하면 남은 국정 과제의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권력이 급격히 분산되면서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아권이 과반 의석을 얻는 상황이 오면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최대한 활용, 여권의 주요 정책을 견제하면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권 실정을 부각시키는 등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돌로 쪼개진 아권이 이번 총선에서도 패한다면 지난 18대 총선부터 3연패의

수령에 빠지면서 아권 분열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내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년 만에 선거를 통한 3당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 구축이 유력한 만큼 그동안의 양당체제가 갖는 극한 대립과 비효율이 일정부분 해소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 결과는 차기 대권 주자 이른바 ‘잠룡’들의 대선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부겸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과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김부겸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등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레이스의 초반전 우열이 가려지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결전의 날 ... 투표·개표 이렇게

### 신분증 확인 뒤 투표용지 2장에 기표

### 개표 기계가 정당별·후보별 표 분류

#### 광주·전남 1229곳서 투표

#### 광주 동구, 여수·고흥지역 재보선 겹쳐 투표용지 3장

4·13 총선, 결전의 날이 드디어 왔다.

이번 총선 투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는 ‘내 투표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 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장에 가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 용지 2장을 한꺼번에 교부받게 된다.

한 장은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되고, 나머지 한 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것으로 정당에 기표를 하면 된다.

특히 광주시 동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차치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 한 장이 추가로 교부된다.

여수와 고흥도 지방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마찬가지로 한 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배부된다.

그렇다면 총선 투표가 끝나면 당선자를 가려내기 위한 개표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이날 오후 6시 투표가 끝나면 광주 359곳, 전남 870곳 등 모두 1229곳의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들은 27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당 지역 개표소로 옮겨진다.

투표함은 경비경찰 2명과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의 투표 참관인 각 1명, 투표 관리관이 호송하는 가운데 선관위에서 임차한 승합차로 운반된다.

투표함이 각 시·군·구 개표소에 도착하면 정당 투표 참관인, 무소속 후보자 참관인이 투표함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자물쇠를 풀고 개함한다.

개함이 되면 선거 전까지 훈련을 받은 개함인들이 개함부서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지역구 투표 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분류한다. 지역구와 정당투표로 나뉜 표들은 개표 기계가 컴퓨터 등과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김부겸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등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레이스의 초반전 우열이 가려지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운영부는 분류된 표를 후보자와 정

### 4·13 총선 '투표' 이렇게 하세요

1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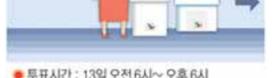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음



3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후보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



4 투표지를 잘 접어 투표함에 넣음



- 투표시간 : 13일 오전 6시~ 오후 6시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지참
- 해당 기표용구 외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
- 기표소내 투표지 촬영금지
- 초등학생까지 투표소 동반 입장 가능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별로 100매 단위로 묶어 그 다음 확인 부서인 심사집계부로 옮긴다.

심사집계부에서는 오류 없이 분류됐는지 여부를 확인, 이상이 없으면 위원회에서 최종 확인을 한다.

해당 지역 부장관사인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개표 상황을 공표한다. 당선자는 투표율 60%를 기준으로 지역구는 차점, 비례대표 투표는 다음 날 새벽 2~3시에 최종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 레이저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토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무출혈 / 무통증 / 무봉합 / 무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 법인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